



표지사진 : 2001년 1월 10일
개원한 지바카 병원입니다.
건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기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힘
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JTS 통권 28호 2001년 3·4월

펴낸날 : 2001. 3. 8

펴낸이 : 법 루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윤기희, 김애경, 최양희, 이순희
이상임,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http://www.jts.or.kr>

인도

- 4 인도 등게스와리 소식
지바카병원 개원식
인도통신 - 지진피해 구호활동

북한

- 10 지금 북한에서는
2001년 한국 JTS 대북지원사업 계획

청소년

- 14 아름다운 청소년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 16 후원의 소리
모금활동을 하고 나서
인도에서 가져온 것
- 19 **한국제이티에스 후원의 밤**
- 20 활동보고 및 안내
- 22 회원광고
- 23 신규회원 명단
- 25 결연단체현황
-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이덕아 (인도 JTS 책임자)

스케치 하나

- 2001. 1. 9 동계스와리지역 마을운동회

슈자타아카데미 건물 뒤 운동장에서 왁자지껄하니 마을운동회가 열렸다. 바늘귀 빨리 끼우기로 시작된 운동회는 부녀회 회원들을 즐겁게 참여하게 했고, 이긴 부녀자들에게 양동이 가 선물로 돌아갔다. 줄넘기 오래하기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응원소리에 재미있었고, 눈 가리고 장애물 돌아 달리기도 너무 신나 했다. 마을청년들이 참여한 포환 멀리 던지기과 인간띠 줄다리기는 대단한 응원 속에서 땅바닥에 뒹굴면서까지 마지막 힘을 다했다. 문구류선물을 받으니 더욱 신났다. 집까지 한시간 반을 걸어야 하는 거리 때문에 아쉬움을 남긴 채 미리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전거 타기 시범과 탁춤판의 격렬한 몸 동작은 마지막 신명과 흥을 돋구었다. 내년에는 미리 연습해서 참가하겠다는 다짐을 보이기도 하고, 즐거웠다는 마을 사람들의 밝은 얼굴에서 흐뭇함이 넘친다.



스케치 둘

- 2001. 1. 10 만코시힐 유치원 개원식

개원 테이프를 끊으면서 시작된 행사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소개되고 단정하게 차려 입은 어린이들의 환영의식을 비롯하여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유치원 생활을 그린 촌극은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출석을 체크하는 수업장면에서 선생님의 행동을 그대로 표현해 내는 것이 너무 귀엽다. 예전에 구걸하던 모습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구걸하지 않아요” 라고 팔을 들

어 다짐하는 아이들의 당찬 모습이 오히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부모님께도 꼭 유치원에 보내라는 이사장님의 당부까지 여운으로 남는다. 분홍색 외벽에 꽃무늬 장식으로 된 유치원에서 공부하게 된 아이들이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받아 들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낸다.



스케치 셋

- 2001. 1. 10 **지바카병원 개원식**

93년 수지타아카데미를 지을때부터 학교건물 한 칸에서 의료활동을 해왔던 지바카 병원이다. 공사에 참여하는 한국인을 위한 응급 치료용 구급약 준비로 시작된 것이 마을 사람들 결핵치료를 그리고 커다란 건물로 완성된 것이다. 병원건물은 99년 7월부터 짓기 시작했으니 햇수로 3년만에 완성한 셈이다. 많은 사람들의 열원을 담아 공들여 지은 병원 개원식 이었다. 동게스와리 지역 주민들과 인도 성지순례를 간 한국 사람들, 비하르주 수상과 보건부 장관, 가야시 시장님, 태국의 환

경운동가이신 술락시바라사 박사님과 그 외에 여러 스님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마을사람들에게 헬리콥터라는 물건을 처음으로



선보여 주신 비하르주 수상의 환영사와 이사장님의 인사, 그리고 술락 박사님의 축사가 이어지는 행사장은 병원을 세워 사람을 치료하고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으로 가득 찼다. 업무도 못내는 일을 해내는 것에 대한 탄성이었다고나 할까? 3천명분을 준비한 도시락은 예상외로 많은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의 인원 때문에 제대로 못 받아

울상인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을



짓던 인도 기술자가 자기 생전에 이렇게 큰 건물은 처음이라고 하니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얼마나 큰 씨앗인지 능히 헤아려 볼 수 있는 일이다. 건평 387평의 2층 건물. 1층에는 접수실, 진찰실, 주사실, 작은 수술실, 약국, 엑스레이실, 검사실, 남녀 입원실, 출산실, 간호원실, 부엌과 식당이 있고, 2층은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홀로 평상시에는 마을회관으로 쓰고 전염병이 돌면 응급병동으로 쓸 계획이다. 현재 7명의 자원봉사 의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6월이면 이사장님과 인도 보건부 장관, 가야시 시장, 에리카대학 의대 학장님을 비롯한 의사선생님들이 모여 병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부 장관이 상근 의사와 약을 지원해 주겠다고 공개적인 약속은 결핵퇴치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 하고 있는 모자보건 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물결처럼 오고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행사를 정리하고 보니 ,해는 어느새 누엣누엣 지고 몸은 피곤한데 얼굴은 밝고 마음은 뿌듯하다.



인도통신 - 지진피해 구호활동

정정임 (인도 JTS마을개발 책임자)

2001년 1월 26일 인도 구자르트주 지역에 대형 지진이 일어났다.
1월 28일 이 소식을 접한 인도JTS에서는 구자르프주의 부즈 지역으로 긴급 구호활동을 떠났다.
정정임(인도JTS 마을개발 책임자), 아제이(수자타아카데미 교사)를 포함하여
마을 유치원 교사 5명이 1월 30일 동계스와리를 출발하여 2월 4일 현장에 도착하여
5일부터 15일 까지 Children camp를 열었다.

2월 4일

아제이와 저는 오늘 트럭을 얻어 타고 빠짜오 본부와 부즈 본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부즈에서는 시장을 만났는데 의사와 물자 등 모두 자기들이 소화하고 넘쳐 난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건물들도 신문에서 본 것 보다 많이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약들과 옷가지들이 널부러진 걸 보면 물자가 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물자는 '담요와 텐트'입니다. 지원하겠다면 한국에서 직접 보내는 것보다는 인도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역시 빠짜오에서도 중앙통제본부를 방문했는데 그들도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어디에 쓸 줄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사들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원 봉사자들은 각자가 텐트를 치고 음



식도 해결하고 머물다 가고 있습니다. 빠짜오 지역은 71개 마을로 인구 145,000명중에서 7,300명이 사망했고 10,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저와 6명의 인도 JTS 마을 유치원 교사들은 인도 구자르트주 부즈 지역에서 아래로 67Km 지점, 빠짜오 지역에서 위로 10Km 지역에 있는 '군찌사르' 마을에서 구호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찌사르 마을은 인구가 500명으로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가 4명이고, 거주자 중 어린이 수가 200여명인 지역입니다. 군찌사르는 가난한 마을이고 가옥이 이번 지진으로 100% 파괴되었습니다. 이 군찌사르에서 2Km 떨어진 곳에 '매그뿌르'라고 하는 같은 상황의 마을이 있는데 매그뿌르에는 아마다바드에서 온 한 팀의 NGO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교사들과 다시 회의를 하고 두가지 활동을 계획 했습니다. 첫째는 마을 재건 사업, 둘째는 어린이 구호 활동 입니다. 바짜오 지역을 돌다가 아이들 놀기에 안전하고 넓고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건을 내리고 교사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텐트를 다쳐 놓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못구한 물건을 구하러 한시간 삼십분 걸려 간디담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도 거의 80% 파괴된 지역입니다. 열린 상점에서 비스킷이랑 문방구류를 구해서 저녁 여섯시쯤 우리 텐트에 도착 했습니다. 이리저리 텅구는 나무를 주워다가 만드니 대충 사람들이 드나들고 우리 물건을 놓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밤을 잤습니다. 침낭은 하나씩 챙겨왔지만 비닐 하나 깔고 누우니 땅바닥의 딱딱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몇 번 작은 흔들림들, 아직도 지반이 자리를 잡지 못했는지 미진들이 하루에 한차례씩 계속 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우리 일행이 바짜오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처음으로 잠을 자고 난, 아주 흥분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children camp를 시작하려 합니다. 준비한 도구와 비스킷 등을 챙기고 수자타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살려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 음식물 공급, 놀이 등을 해 나갈 것입니다.

2월 10일

10시가 되어서 나타난 아이들이 열댓명, 4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돌려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노트와 비스킷을 들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지금은 대략 50명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첫날은 노트와 연필, 둘째날은 수건과 비누, 세째날은 옷가지, 네째날은 속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챙겨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후 어김없이 평가를 하고 다음날 일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Christian Children's Fund Team이 저희 작은 학교를 이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근처에서 Unicef meeting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미팅이 끝나고 Resional president를 만났고 정신 치료자들 몇 분 만났습니다. C.C.F.에서 열린 학교에 가보니 거의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C.C.F.측에서는 6개월 정도 몇 개 지역에 학교를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학교를 넘기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우리도 Emergency fund를 조성해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장기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활동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체와 연계하고 교류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과 저는 남은 일정 더 열심히 아이들과 어울리고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참말 예쁘고 붙임성이 많습니다. 어디건 마두리 안티 나마스테 하고 따라붙습니다. 얼마간 눈앞에 어리겠는데요. 정신치료가 두 분이 저희 학교를 방문하고 만족해하면서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2월 19일

마두리입니다. 무사히 수자타아카데미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국에는 눈이 온다구요.. 참 눈이라 생소하군요.. 비행기표를 받아야 스리랑카 가는데 아직... 구자라트에서 아이들과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들은 아이들을 두고 오기 마음 편하지 않았는데...

christian children's fund에 넘기고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구호활동이었는데, 참 모험적이고 스릴 있었습니다. 아직도 땅이 흔들리고 있다면 믿을는지, 사진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네요. 다들 몸 건강히... 부처님의 땅 부다가야에서...





2001년 한국JTS 대북 지원사업계획

한국JTS는 9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5년째 대북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국경변 긴급식량지원을 비롯하여 라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 영양식 공급사업, 농업 지원사업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인정되어 2000년에는 함경북도 고아원, 경로원 지원을 하게 되었고 2001년에는 평양근교의 농장지원과 전국의 1세~4세 고아 어린이가 있는 육아원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JTS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2001년의 대북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지원사업

(1) 라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 지원사업

97년부터 <라진-선봉 경제무역 지대>의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 11,000여명에게 영양식을 지원하고 있다. 1세미만의 젓먹이 어린이 760명에게는 분유를 1인당 한 달에 3Kg씩 공급하고 있으며, 10,240명의 어린이에게는 영양식을 1인당 한 달에 3Kg씩 공급하고 있다. 영양식은 라진에 있는 <JTS 라진-선봉 대표사무소>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 달에 필요한 원재료 분유 5톤, 설탕 10톤은 부산에서 라진까지 콘테이너로 보내고, 입쌀 20톤, 옥수수쌀 6톤은 중국에서 구입하여 라진에 보내고 있다.

(2) 전국 육아원 어린이 지원사업

북한의 고아원은 나이별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데 1세~4세는 육아원, 5세~8세는 애육원, 9세~15세는 초등학교, 16세~18세는 중등학교이라고 부른다. 한국JTS는 제일 어린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전국의 1세~4세의 육아원어린이 5,000명에게 영양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세워서 영양식을 생산할 수 있지만 대표사무소, 공장 등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올해는 현재 라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늘려 공급할 예정이다.

(3) 청진 고아원 어린이 지원사업

청진에는 육아원, 애육원, 중등학원이 있고 가까운 길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4,000여명의 어린이가 있다. 2000년에는 밀가루와 이불, 옷, 비누 등 생필품을 지원하였는데, 2001년에는 밀가루와 국수기계를 지원하고 옷, 신발, 양말 등 필요한 생필품도 지원하려고 한다.

(4) 온성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 지원사업

함경북도 온성의 유치원, 탁아소에는 15,000여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협의는 해왔지만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배분하는 조건이 협의되어 어린이들에게 국수지원을 할 예정이다.

2. 농업지원사업

(1) 함경북도 경성군

1999년도 라진-선봉지대의 부포농장에서 실시한 <옥수수 비닐피복 재배>의 성과가 널리 알려져 함경북도 인민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와 경성군 염분협동농장 100정보에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부포농장에서는 평소 농자재와 농업기술 낙후로 1정보당 700Kg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것을 1999년도에 비료, 비닐, 농약 등 농자재와 <옥수수 비닐피복 재배>기술로 재배한 결과 1정보당 9.3톤을 생산하여 13배의 증산을 보였다. 염분협동농장에는 2월에 기술 협의차 농장방문을 하였는데 농장일꾼들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올해에 큰 이변이 없는한 이 지역에서도 1정보당 9~10톤의 수확을 예상하고 있다.

(2) 라진-선봉 지대

라진-선봉지대는 1999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올해는 300정보에 <옥수수 비닐피복 재배>를 하기로 하고 비료, 비닐, 농약 등 농자재와 농업기술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라진-선봉지대를 토지가 습하기 때문에 비닐피복재배가 아주 적합한 지대이다.

(3)함경북도 온성군

온성군은 98년 시험재배로부터 시작해서 4년째 농자재와 농업기술 지원을 해오던 지역이다. 벼농사와 옥수수농사를 계속해서 지원하여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해마다 다른 지역에서 참관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 올해는 벼농사 200정보, 옥수수농사 200정보에 농자재, 농업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벼농사는 수시로 가서 보아야 하는데 2000년도에는 농장에 60여차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다. 온성군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므로 농업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4)황해북도 연탄군

이 지역도 부포농장의 <옥수수 비닐 피복재배>의 효과를 인정하여 평양에서 농자재와 기술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하게 되었는데 황해북도 연탄군 참해협동농장이다. 이 농장의 총면적은 900정보인데 옥수수 400정보, 벼농사 350정보, 기타 150정보이다. 이 중 옥수수 100정보에 대하여만 <비닐피복재배>로 하여 비료, 비닐, 농자재 등과 농업기술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옥수수농사, 벼농사와 기타농사에 대하여는 비료만 지원하기로 할 예정이다.

통일돼지저금통을

키워주세요



제이티에스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을 살리는 모금운동으로 돼지 저금통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통일돼지저금통. 개인과 단체 상관없이 분양합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바로 배달해 드립니다

문의 : 02-587-8995



비료1Kg가 량식 10Kg가 되어 돌아옵니다.

황선생님 (JTS 중국 농업전문가)

또다시 농사철이 되어갑니다. 북한의 농민들도 농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농가비료(두엄)를 밭에 내놓고 3월이면 영양단지(흙과 두엄을 섞어 덩어리를 만들고 옥수수종자를 넣어서 싹을 틔운 뒤 밭에 옮겨 심는 방식)를 만듭니다. 3월이라도 아직 날씨가 풀리지 않은 때라 땅이 얼어서 영양단지 만드는게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밭에 옮겨 심을 때 나무 심듯이 일일이 심고 물을 잘 주어야 합니다. 영양단지는 밭이 적을 때는 정성껏 심고 잘 보살펴주면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협동농장으로 운영되는 북한의 농장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단지를 학생단지라고도 하지요.

봄이 되면 농장일꾼들의 가장 큰 근심은 비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가비료

(두엄)를 만들기도 하고 국가에서 약간의 비료가 나오기도 하지만 생산량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량입니다. 몇 년 동안 JTS에서는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왔는데 그때는 급할 때였기에 시기 적절하게 지원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량지원보다 10배 이상 효과를 내는 것이 농업지원입니다. 북한 농업일꾼들은 비료 1Kg가 식량 10Kg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효과이지요. 수확량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비료라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료만 가지고 많은 생산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비닐, 농약 등과 농기구, 농기계가 제대로 있어야 농자재도 절약할 수 있고 힘도 적게 들이면서 높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무엇이나 물자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지원도 따라가야 합니다.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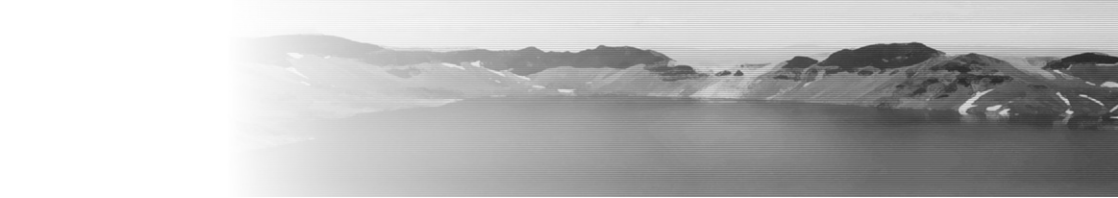
김애경 (JTS 청소년사업부)

2001년 1월 2일, 안양에 있는 소년원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된 수련에 참가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촌극으로 마무리를 한 종교행사도 있었고, 다도와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시간도 청소년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전 한시간 정도 맡아했습니다. 명상을 주로 했는데, 색달라서였는지 조용하게 진행되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자신의 주인공됨을 주제로 잡았는데,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진행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전원생 대부분이 나름대로 편안해 했습니다.

연이어 4일 동안 부산에 있는 소년원에서 진행된 수련에 함께 했습니다. 조별로 각자 소개시간을 가졌고, 장기자랑 100가지도 했습니다. 미처 써내지 못한 것은 숙제로 마무리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리 유언을 써보기로 했는데, 생을 마감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되고

싶은 모습에서는 대다수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것과 돈 많이 벌어서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JTS 소개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의외로 컸습니다. 적은 돈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쓰여지는 것과 작은 힘들이 모여 소외된 곳에 잘 쓰여지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모았습니다. 저렇게 살수도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또한 염원을





답아 선물을 직접 만들어 기도도 함께 했고, 장기자랑 시간에는 서로 멋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매일 맛있게 해 주었던 간식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소 감문을 받으며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돕는 이들이 늦은 밤까지 썼던 편 지를 전해주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적응 청소년수련 때도 그렇지만 소년원수련도 진행자들이 당황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이 너무 크고 깊습니다. 4,5일 정도의 기간동안 다루기에는 박찰 정도로 가슴이 저맙니다. 개별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상처가 심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결손이라는 특정 가정의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고, 어느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학교, 사회 모든 분위기가 청소년들을 옥죄니다. 이 이상의 스트레스를 더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원인을 풀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잠시 잊어버리려는 경향이 짙고, 지쳐있습니다. 소년원 친구들은 진행자들을 너무 잘 읽는 힘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서슴없이 요구합니다. 싫으면 가차없이 뱉어냅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어른들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없는 눈빛을 강하게 보냅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99년도 현재 2,900여명의 청소년들이 12곳 소년원에 있습니다. 소년원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가게 되며, 최장기 25개월까지 형기를 받을 수 있기에, 23세까지 있게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같이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이 알고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의 강한 힘을,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내는 만큼, 그들처럼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잘 살아가는 어른으로 살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늘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모금활동을 하고 나서 ...

김 유 정 (광남고 2학년)

2001년 1월 27일 토요일

이제까지 해왔던 봉사활동과는 너무나 다른, 색다른 경험을 했다. 북한 어린이를 위한 모금이었는데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호기심이 엄청났다.

명동거리에 나가보니 내가 여기서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이런 봉사 활동을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느냐며 지현이와 나는 나름대로 용감하게 모금함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일단 북한어린이를 돕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주기로 했다. 쉬울 것 같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좀 어설픈게 건네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냉담했다. 안 그래도 쑥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용기를 내서 '읽어보세요'라고 내밀어도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였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봐서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다. 날은 춥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모금함을 들고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다.

눈을 맞으며 있으니 너무 처량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고도 싶었다. 그래도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았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5천원짜리 지폐를 선뜻 넣어주시는 것이었다. 정말 감동했다. 우리 용기를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했다. 가게 옆에서 잔돈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야예 모금함을 들이밀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억지스럽지만, 그때 돈 모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정성스럽게 모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꺼려하며 재수 없이 걸렸다는 듯 돈을 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안타까웠다. 원래 이런 모금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리나라와야 가치 있는 것일텐데 ...

우리 정말 열심히 해서 처음치고는 잘했다는 칭찬도 들었다. 자잘한 동전들까지 합쳐서 약

20000원을 조금 넘게 모았다. 정말 뜻깊었다. 모금활동을 한 사람은 나와 지현이를 합해서 6명뿐이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주위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모금활동이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이유는 역시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 요즘이 IMF라고 그런 인식까지 얼어 붙어있을진 모르겠지만, 조그만 정성에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그런 길거리 모금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봉사활동으로 인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제까지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모금함. 또 받지 않으려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전단지. 그것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뜻깊은 일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 그제서야 이 일의 어려움을 알겠다.



내가 이 모금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흔쾌히 하라고 하셨었다.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 될거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와 사회성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런 것 보다도 더욱 절실히 배운것이 있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라는 것이다. 또 활동이 끝난 후에 어저씨와 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게 설마 직업은 아니시겠죠?" 라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따로 직업이 있다고 했다. 이 활동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였다. 다들 너무 마음이 착해 보였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천 원이면 북한 아이들 일주일 먹을 것은 된다고 한다. 까짓 천 원 정도는 하루 굶것질 거리만 빼도 되는 것일텐데.. 아니, 그런 돈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의 조그만 정성과 관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돌아오면서 어떤 장애인의 모금함에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넣었다. 지갑엔 만원짜리 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동전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만원짜리를 선뜻 넣어줄 수 없는 내자신의 마음속에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외치는 자기합리화의 주장과 '아직 멀었다'고 되뇌이는 말이 뒤섞였다. 내가 "이것밖

에 없어서...”라며 돈을 넣기를 미안해 하니, 그 장애인은 활짝 웃었다. “얼만지 모르게 넣어라지” 하니, “다 보인다”라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 그렇게 그 사람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조그만 관심으로도 사람과 사람간의 따뜻한 정을 확인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정말 뜻깊은 봉사활동이었다.

인도에서 가져온 것

김 나 영 (JTS 정보자원 관리부)

변화다. 교육의 변화. 그러니까 수자타어카데미를 짓기 전에 인도를 다녀왔으니... 수자타를 처음 봤다. 그리고 수자타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봤다. 수자타에 있는 3일 동안 울컥 울컥 목이 메어와 무지 고생했다. 가만히 길을 건다가 눈물을 흘리거나 카메라 들고 왔다갔다 촬영을 하다가 눈물을 흘린다면 거의 미친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수자타를 걷고 있을 때 조그만 아이들이 “나마스떼 시스터”라고 인사하며 환하게 웃는데 그 미소와 밝음에 감동 받아 울컥. 수자타의 중학생은 유치원 선생님이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거다. 오전에 자전거 타고 각 마을 유치원으로 가 수업하고 오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중학교 수업을 받는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을 얼마나 챙기는지... 그 모습보고 울컥. 그들은 학생이전에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선생님이다. 이번엔 초등학생들이 꽤 성지순례를 했는데 어느 사이 친해져서 서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울컥. 그 예전 머리는 산발~ 엉켜있는 머리가 마치 몇 년 동안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에 외국인을 보면 한뼘 달라고 매달리던 아이들이다. 이젠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학생이다. “나마스떼 시스터”와 “헬로 마미 박시시”의 차이는 (인도에서 구걸할 때 “헬로 마미 박시시” 한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될 듯 싶다. 늘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는 곳 수자타어카데미’란 카피를 주로 사용하며 홈페이지 작업을 하는데 이번 수자타 방문에서 그게 뼈 속 깊이 박혔다.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 돕기

한국제이티에스 후원익밤

일시 : 2001년 4월 10일(화) 오후 7시

장소 : 부산 금정 문화회관 대강당

문의 : 051-557-6372, 02-587-8995

Join
Together
Society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엔류의 비극,
그러나 고독에서 JTS는
희망을 일구어 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 사회 : 정목스님

여는마당

영상보고 :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 북한과 제3세계 어린이와 함께 하는 제이티에스

인사말씀 : 법륜스님(한국JTS 이사장)

격려말씀 : 정관스님(영주사 회주)

축하연주 : 김영준(바이올리니스트) · 엘가-사랑의 인사

후원인께 드리는 글 1 : 이명실(북한에서 온 친구)

축하노래 : 혼성 중창단 LMB Singers · 바람부는 산사 / 투나잇 / 그대 그리고 나

청년영상 : 청년들의 북한어린이돕기 활동

후원인께 드리는 글 2 : 슈레쓰 찬드라(인도 수자타아카데미 교장)

축하노래 : 테너 엄정행 · 석굴암 / 목련화

고마움을 나누는 시간

내빈 소개

닫는마당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지바카 병원 개원식

2001년 1월 10일 수자카아카데미 옆에 위치한 지바카병원 개원식이 있었다. 인도 비하르주의 라브리 데비 수상과 RJD정당 총재 랄루 야담, 타이의 환경운동가 술락시바락샤 박사와 인도에 머무는 각국의 스님 200여분들을 포함해 2만 여명이 모인 대단위의 행사였다. 한국에서 간 100여분의 인도 성지순례자들도 함께 하였다. 1월 9일과 10일에는 만코시힐 유치원 준공식과 동게스와리 지역 수자타아카데미 7주년 기념식 행사가 있었다.



●인도 지진 피해지역 긴급구호 활동

인도 서북부 지진피해지역 중의 한 곳인 구자르트주 빠짜오 지역 작은 마을에서 어린이구호 캠프를 열었다. 정점인(인도JTS 마을개발 책임자)외에 마을유치원교사 6명이 참가하였다. 7명의 긴급 구조활동 단원들은 1월 30일 동게스와리 지역을 떠나서 2월 4일 현장에 도착, 5일부터 15일까지 Children Camp를 진행하였다.



●제12차 인도 성지순례 후속모임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인도성지순례 후속모임이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층 강당에서 있었다. 30명 정도가 모여 완성된 성지순례 비디오를 보고 순례 이후의 생활에 대해 얘기하며 유익했던 인도의 경험을 되살려 보았다. (성지순례 비디오는 판매됩니다.)

●인도성지순례기 인터넷을 통해 전달

한겨레신문 조연현기자가 인도성지순례에 참가하였던 이야기를 2월 26일부터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www.hani.co.kr / 뉴스메일 express / 문화부 / 조연현의 내가 만난 종교인)

이글은 불교정보센타 www.budgate.net에 동시에 올려 진다.

또 최광수님이 <http://my.netian.com/~youthjts/>게시판에 긴긴 순례기를 올렸다.

●수자타아카데미 전화·전기 공사

수자타아카데미 전화 설치 공사가 3월 2일 시작했다. 소에푸르에서 학교까지 케이블 설치를 위한 땅파기 작업을 JTS 감독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전기 공사는 3월 5일 슈바스가 파트나 전력공사 장관을 만나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인도 6개월 자원봉사자 귀국

지난해 9월 파견된 5명의 6개월 자원봉사자들이 무사히 활동을 마치고 3월 26일 오후 2시 강당에서 보고회가 있다. 또한 인도사업의 회계를 담당하러 사무국의 장영주(무애상)씨가 새롭게 파견되었다.

북한지원사업

●애육원 어린이들에게 의류 지원

파파리노와 레노마를 비롯한 다른 몇 군데 업체에서 후원받은 어린이 의류, 신발, 양말 2컨테이너 분량 276 박스가 북한의 애육원 어린이들에게 전달된다. 3월 10일 인천항을 출발해서 12일 남포항에 도착할 이번 물건은 아직도 추운 애육원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다. 후원 물품을 보내주신 모든 업체에 감사드린다.



국내 사업

●청소년 심성수련 후속모임

2000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청소년심성수련 후속모임을 2월 1일 가졌고, 24일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후 명동에 나가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했다. 매월 3째주 토요일마다 '날새' 라는 팀이름으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기로 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JTS에서 봄 학기에 활동할 한양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자교육이 3월 10일과 13일에 각각 있다.



매화향 흐르는 사무실에서

윤여여행 (JTS 회원관리부 자원봉사자)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지만 아직도 몸은 으스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창가를 찾지만 마음은 벌써 봄처럼 따뜻해요. 봄날 여행길에 차창 밖을 한번 쳐다보세요. 멀리 새순 물오른 연두빛 동그란 나무들과 사이사이 연분홍 빛 머금은 산마루를... 느껴지시죠? 얼마나 아늑하고 포근한지. 그 차 오르는 행복감. 저희들이 일하는 곳이 바로 그런 행복감이 충만한 곳입니다. 어떤이가 남쪽 지방에 여행 갔다 혼자 먼저 봄을 보고 온 게 미안한지 매화 한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곱게 가져다 꽃은 매화 향기 가득한 사무실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향기에 취해봅니다. 게다가 대원심 언니의 귀여운 수다(?) 이 사람 저 사람 향해 말아보라며 붙잡아오는 사람들로 사무실은 봄날 꽃시장 같답니다. 언니는 그 예쁜 마음으로 우리 JTS 회원님들께 인사장도 보내고 mail도 보내고.... 회원님들, 당신들께서 보내 주시는 그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언니 같은 예쁜 마음을 가진 저희 JTS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답니다.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만 인사말밖에 없군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소중한 아름다운 한사람, 한사람이신 저희 회원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에 매화꽃 향기 가득 실어 보내 드릴게요. 향기로운 봄날 맞으세요.



연락주세요

2001년 1월, 2월 제이티에스 후원금을 보내주시 명단입니다.
주소를 몰라 소식지를 보내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주위의 인연이 닿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제이 - 조재연(1만) 박승우(15만) 황회리(5천) 강현구(2만) 이명익(5만) 이제화(5만) 노희순(5천) 서성갑(5천) 조혜란(1만)
- 조흥제이 - 임창호(1만) 정평화(3만) 오금실(1만) 박수희(1만) 윤해영(1만) 신현정(5천) 최규은(5천) 김수영(1만) 박경화(1만)
- 국민동포 - 유선(1만) 유경재(1만) 강민호(2만) 박혜경(1만) 안치욱(1만) 백성현(1만) 신명화(1만) 엄효순(1만) 유미옥(5만) 김광원(2만5천)
- 국민결연 - 우정숙(1만) 최승연(5천) 이윤경(2만) 김상호(1만) 김혜순(1만)
- 농협제이 - 조해숙(5만) 유혜선(5천) 장영은(2만) 조수연(2만) 엽전가르미(6만)
- 한빛제이 - 이종일(6만) 유규희(2만) 윤선애(1만) 이지복(2만)
- 하나제이 - 최미전(1만) 최인성(1만) 황현주(1만)
- 국민은행 - 이윤경(2만) 유상열(6천) 김상호(1만)
- 제일제이 - 임배아(6천) 김선태(2만) 이인숙(2만)
- 주택제이 - 유계조(5천) 김진철(1만)
- 외환제이 - 손정남(1만) 이귀숙(3만)
- 서울은행 - 한성희(2만)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인도 어린이 결연

김은미 211-02204-11
 신상보 211-02205-11
 최희선 211-02206-11
 장철수 211-02207-11
 박관자 211-02208-11
 최고은 211-02209-11
 조경원 211-02210-11
 김재훈 211-02211-11
 이선규 211-02212-11
 정성도 211-02213-11
 박해연 211-02214-11
 최지선 211-02215-11
 김은자 211-02216-11
 서대하 211-02217-11
 윤정준 211-02218-11
 민수경 211-02219-11
 민태경 211-02220-11
 강문성 211-02221-11
 이선애 211-02222-11
 정금안 211-02223-11
 한관수 211-02224-11
 박종윤 211-02225-11
 박현조 211-02226-11
 정혜진 211-02227-11
 김은경 211-02228-11
 김은하 211-02229-11
 최영택 211-02230-11
 엄주웅 211-02231-11
 강정숙 211-02232-11
 전호진 211-02233-11
 오성기 211-02234-11
 이한수 211-02235-11
 이경순 211-02236-11
 이항울 211-02237-11
 사은희 211-02238-11

김현기 211-02239-11
 윤여단 211-02240-11
 최석중가족 211-02241-11
 김영은 211-02242-11
 최윤라 211-02243-11
 김종숙 211-02244-11
 김철수 211-02245-11
 이광선 211-02246-11
 배석희 211-02247-11
 성일수 211-02248-11
 경은배 211-02249-11
 김경하 211-02250-11
 문송경 211-02251-11
 한유선 211-02252-11
 권상례 211-02253-11
 오경순 211-02254-11
 김선우 211-02255-11
 조군자 211-02256-11

정학주 111-02504-14
 임수지 111-02505-14
 송영미 111-02506-14
 김선희 111-02507-14
 박덕성 111-02508-14
 최병운(진미라) 111-02509-14
 김은옥 111-02510-14
 이소영 111-02511-14
 김은정 111-02512-14
 김정자 111-02513-14
 손진길 111-02514-14
 신점식 111-02515-14
 김명희 111-02516-14
 한상천 111-02517-14
 한상복 111-02518-14

단체 결연

이승남 212-00199-11
 천우네 212-00200-11
 지철이네 212-00201-11
 (주)경인병장 212-00202-11
 이 균 212-00203-11
 마산청송한의원 212-00204-11
 김성우, 구일용 212-00205-11
 마산창동학문외과
 212-00206-11
 박석규 212-00207-11
 한국민주인권협의회
 212-00208-11
 푸른공동체21 212-00209-11

북한 어린이 결연

이희창 111-02492-14
 박연섭 111-02493-14
 이용우 111-02494-14
 최봉자 111-02495-14
 이혜련 111-02496-14
 박중서(백은경) 111-02497-14
 김선태 111-02498-14
 박인숙 111-02499-14
 송상섭 111-02500-14
 박 호 111-02501-14
 김누리(두레) 111-02502-14
 상운스님 111-02503-14



특별후원금, 물품후원명단

2001년 1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들어온 명단입니다.

특별후원금

- 정규덕, 황영숙-300만원 (지바카병원 X-Ray, 현미경)
- 김애경-30만원 (지바카병원 후원)
- 김순자-10만원 (지바카병원 후원)
- 안덕화-50만원 (지바카병원 후원)
- 신희사 성일스님 500만원(인도 후원)
- 인병길-17만원(인도 후원)
- 한태숙- 20만원 (인도 지진 구호비)
- 최봉자-50만원
- 김연정영가-50만원
- 부산원종사승복집-100만원
- 백운월-10만원
- 김명렬-10만원
- 김양순-100만원
- 전외자-105만원
- 현익채-129,000원
- 이광섭-20만원
- 김월애-30만원
- 법용스님- 190,144원
- 하근수-1,000루피
- 김정아-1,000루피
- 김원기-20만원
- 김민영-100만원
- 장영광-5만원
- 180차 깨장참가비-19만원
- 안성종합고등학교 전산반-41,190원
- 문일어린이집 어머니일동 (부산)-10만원
- 녹십자 알로에 범일지사 (부산)-4만원

- 마례용, 채환옥-100만원
- 동삼환, 일의화-10만원
- 진유진, 성나진-10만원
- 관음사-20만원
- 청안사-100만원
- 공부주-5만원
- 소니아장-100 \$
- 김순애-1,000 \$
- 염윤희-200 \$
- 백인순, 백인자-50 \$
- 한국민주인권협의회 -1,118,45 \$
- 뉴욕 JTS-5,000 \$
- 미국 한영실-200 \$
- 윤선문, 성찬권-10만원
- 대원사 지바신행회 100만원(지바카병원후원)
- 외환카드 북한어린이 돕기
- 김상국 외 236명 133만원

물품후원

- 코기리 유치원(대구) 유치원 가방, 추리닝 10박스
-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어린이 의류 50박스
- 한국제약협회 포나졸 연고(경남제약)외 21 품목(2,520,490원 상당)
- 대한 특운 용인 JTS창고 ~ 인천 남항 무료운송 (2.5t 트럭)
- 활영숙 의료가운 11개, 귀이경, 혈압계, 청진기, 체온계, 팬라이트, 핀셋, 가위 등 (인도지바카병원)

부산지역특별후원금

<안양노인환자>

- 김옥련 5만원
- 장진하 3만원
- 김미숙, 김미자, 신미자, 박연하, 고순남, 허영자 10만원
- 서은경 10만원

<부산노년원수련지원>

- 정광화 50원
- 김휘숙 3만원
- 심산스님 20만원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2. 28 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라 진					
번호	탁아·유치원명	결 연 단 체 명	아동수	결연아동	결연금액
1	6.12공장유치원	청년네트워크 미래	80	40	200,000
		부산부부 선재회		6	30,000
		정수학원		10	50,000
		자유학교 물꼬		10	50,000
		석형산, 양애자		14	70,000
2	6.16화력유치원	강상욱가족	24	24	120,000
3	6.16화력탁아소	키톨릭청년연대	18	8	40,000
		상곡초등3-4		10	50,000
4	632탁아소	장자공부방모임	35	14	70,000
		중계초등학교 교사회		21	105,000
5	관곡탁아소	성공회대학교	62	62	310,000
6	군미탁아소	환경법연구회	42	42	210,000
7	남산유치원		369		
8	라진농장유치원	상암기획(주)	89	89	445,000
9	라진농장탁아소	서울교대 우리민족합께살기운동	130	130	650,000
10	라진수산유치원	전종덕 이춘규	78	40	200,000
		최용재 차과의원		20	100,000
11	라진수산탁아소	젊은이외모인 햇살	66	10	50,000
		나눔과어울림		40	200,000
		이두원		16	80,000
12	라진항탁아소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178	178	890,000
13	룡수농장유치원		91		
14	룡수농장탁아소	청년정토회	93	93	65,000
15	무창농장유치원	영근터	37	7	35,000
		이승남		20	100,000
16	무창농장탁아소		152		
17	무창림산유치원	엽전가르미	12	12	60,000
18	물고기유치원	진보사회를향한사회인모임	28	24	120,000
		이정현		4	20,000
19	수출피복유치원	서울보증보험 남대문지점	22	17	85,000
20	수출피복탁아소	한국대학생물교연합회 부산지부	68	68	340,000
21	승리화학유치원	(주)오성 E. I	240	50	250,000
		이준구 권한결 차성순		30	150,000
		박춘서 이화백 임익상		30	150,000
22	승리화학탁아소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105	105	525,000
23	라진시유치원	(주)경인방장	289	20	100,000
		이균		20	100,000
24	라진시탁아소	통일미래를 잇는 청년들	350	350	1,750,000



라진·업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2. 28 현재

라진					
번호	탁아·유치원명	결연단체명	이동수	결연이동	결연금액
25	신해수협유치원	젊은고대	40	34	170,000
		팔달사청년회		6	30,000
26	유현농장유치원	재일한국청년연합	90	90	\$360
27	유현농장탁아소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140	140	700,000
28	유현수협유치원	대구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25	25	125,000
29	전기의장품공장유치원	한문화운동	50	5	25,000
		이화여자대학교한울타리팀		45	225,000
30	제2탁아소		300		
31	조선소유치원	재일한국인권협의회	170	85	\$ 340
		동아대민주동문회		10	50,000
32	조선탁아소	부경대민주동문회	150	30	150,000
		경성대민주동문회		30	150,000
		부산대민주동문회		90	450,000
33	지경유치원		202		
34	청진수협유치원	길원기획	37	15	75,000
		서울대사범대 두엄		22	110,000
35	청진수협탁아소	백영현(미국, 뉴욕)	58	45	\$ 200
		김성우, 구일용		13	65,000
36	창평유치원	새발교회90모임	205	10	50,000
37	창평탁아소	다진이네집	96	40	200,000
38	철도유치원	서울사대북한동포돕기모임	135	135	675,000
39	철도탁아소	서울공대청년통일네트워크	128	128	640,000
40	청계유치원	대불련부신지부	207	207	1,035,000
41	청계어린이숙소	곽명옥	31	31	155,000
42	초도수협유치원	안산 새능력교회	24	10	50,000
		이영선		10	50,000
		마산청송한의원		4	20,000
43	피복유치원	맑은샘교회	22	22	110,000
44	해양수협유치원	나눔의집		20	100,000
45	후창농장유치원	연세북녘동포를돕는사람들	82	30	150,000
		서울대보건대학원환경95		8	40,000
46	후창농장탁아소	영남농업시험장	178	42	210,000



번호	탁아·유치원명	선		봉	
		결연단체명	아동수	결연아동	결연금액
1	1.11유치원	열린마음(송광사 인월암)	75	75	375,000
2	1514유치원	고대법대통일사랑	6	6	30,000
3	5.16유치원		165		
4	구룡평유치원	정토대학생회	52	50	250,000
5	구룡평탁아소	(주)오리엔스유니온	20	20	100,000
6	군병원유치원	이선희	40	40	200,000
7	군부대유치원	박현숙, 박경미	6	6	30,000
8	굴포달수유치원	성산초등학교	24	20	100,000
9	굴포분장유치원	이정숙	60	60	300,000
10	굴포탁아소	기림사	130	130	650,000
11	녀중탁아소	서울대인문대87계모임	17	17	85,000
12	두만강체중유치원	인현중학교	27	20	100,000
13	두만강체중탁아소	정의정	20	20	100,000
14	두만강철도유치원	작은이름생각하는사람들	115	115	575,000
15	두만강철도탁아소	구미연세외국어학원	70	40	200,000
16	두만강구유치원	부산청년정토회	115	115	600,000
17	두만강철도침묵 제재탁아소		53		
18	민크목장유치원	지성한의원	27	27	135,000
19	백학목장탁아소		30		
		혜전을 사랑하는 동문회		23	115,000
20	백학분장탁아소	원불교청년회남북한살운동본부	50	30	150,000
		늘벗모임		20	100,000
21	백학유치원	동국대학교교직원	141	141	705,000
22	부포분장유치원	청주정토지회	55	30	150,000
		지철이네		25	125,000
23	부포분장탁아소	영남대청년통일네트워크	130	130	650,000
24	부포오리목장유치원	권수영	74	20	100,000
		신명기획		10	50,000
		미산청동학문외과		10	50,000
25	부포오리목장탁아소	대전법당	20	10	50,000
26	사회리분장유치원	작은이름생각하는사람들	116	116	580,000
27	사회리분장탁아소	중계초등학교 6-5	113	11	55,000
28	상현유치원		358		
29	상현탁아소	경희대총학생회	130	60	300,000
		충북대동아리연합회		30	150,000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2. 28 현재

번호	탁아·유치원명	선		봉	
		결연단체명	이동수	결연아동	결연금액
30	서포함탁아소	성남 태평양 치과의원	30	30	150,000
31	벽돌공장유치원	연세대동아리 열음	30	30	150,000
32	선봉읍유치원		321		
33	선봉읍탁아소		150		
34	송평유치원	상암기획(주)	115	115	575,000
35	송평탁아소	구로시민센터	80	40	200,000
		계명대청년통일네트워크		40	200,000
36	신회분장유치원	양윤덕,오현수	46	34	170,000
		서울대 불날		10	50,000
37	신회분장탁아소	연세대 경영학과 지음	116	16	80,000
		부산 청년불자 산악회		14	70,000
38	아동병동유치원	전통차집 감사(김진희)	25	24	120,000
39	영예군인유치원	서교초등 3-1, 5-2, 6-3	85	36	180,000
40	영예군인탁아소	꿈틀	20	20	100,000
41	운실탁아소	김정숙	30	10	50,000
		학교재편집부		7	35,000
		삼웅산업		10	50,000
42	웃공장탁아소	경희대한의대학생회	90	90	450,000
43	우암분장유치원	정토아나룻다일요팀	23	23	120,000
44	우암수산유치원	금오공대21C진보학생연합	65	40	200,000
		천우네		6	30,000
		누리타운		14	70,000
		인헌중학교 통일무지개		5	25,000
45	우암탁아소		170		
46	웅상분장유치원	동의대한의대 8기	51	24	120,000
				27	
47	웅상분장탁아소	재일한국학생동맹	113	50	200 \$
48	웅상천해유치원	서울대법대	43	43	215,000
49	웅상철도유치원	김옥희	103	100	500,000
50	웅상구유치원	민해동문회	88	12	60,000
				76	
51	원료기지유치원	녹색교통운동	34	27	135,000
52	원료기지탁아소	(유)럭기종합상재	25	20	100,000
		성산초등 2-9		5	25,000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2. 28 현재



번호	탁아·유치원명	선		후	
		결연단체명	아동수	결연아동	결연금액
53	원정유치원	경희대한대	98	98	490,000
54	원정탁아소	전교조초등위원회	227	150	750,000
				77	
55	읍분장탁아소	박석규	30	30	150,000
56	적지397부대유치원	아원공방	14	10	50,000
		보름달		4	20,000
57	적지분장유치원	나와우리	46	46	230,000
58	적지분장탁아소	죽향	85	85	425,000
59	제약탁아소	대원사지비신행회	90	50	250,000
				40	
60	조산리유치원	대구대청년통일네트워크	53	14	70,000
61	조산리탁아소	재일한국청년연합	135	135	\$540
62	중현유치원	작은아름다움사람들	150	150	750,000
63	직물탁아소	서울대역사과 87	42	12	60,000
		푸른공동체21		30	150,000
64	하여평분장유치원		100		
65	하여평채종탁아소	성산초등학교	10	10	50,000
66	하여평탁아소	서울대청년통일네트워크	250	129	645,000
		문경불교청년회		100	500,000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20	100,000
67	하회리분장유치원	거레문화답사연합	76	74	370,000
68	하회리분장탁아소		158		
69	홍의분장유치원	일본NAW, 중앙지역일조공투	106	57	
70	홍의분장탁아소	부산향상선원	125	125	625,000

외환카드 쓰시는 분 보세요

외환카드 Yes Point를 북한어린이 돕기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제이티에스를 선택해 주세요. (보너스 63번)
 지난해 하반기 236명이 제이티에스를 선택해 주셔서
 133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단체나 후원인께서는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핵어린이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금 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번호 :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46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이티에스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2조 1항 1호 타목, 시행규칙 17조 1항(종전 17조 50호), 부칙(1996.3.21) 7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품후원

지난해 연말경 몇군데의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 의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참에 주십시오!